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원래 있던 공동체를 떠나게 된 평신도가 새로 이주한 곳이나 그 근처에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가 없을 때, 어떻게 새로 공동체를 시작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달의 기고자는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자넷 펜스입니다. 그녀는 교구 내 몇몇 작은 신앙공동체에게 "마리아토론모임"을 소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모님을 귀감과 안내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넷과의 인터뷰이며, 특히 마리아니스트 가족이 없는 곳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인터뷰가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씨앗이 제대로 된 평신도공동체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Marceta

마르시타 플레밍 라일리

북미, 아시아, 아일랜드, 호주 지역대표

성모님의 공동체 시작하기



자넷 펜스와의 인터뷰,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자넷, 어떻게 마리아니스트 가족이 되었나요?

나는 성 가족을 향한 진심으로 헌신하셨던 부모님께서 가슴에 심어주신 큰 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가톨릭신자로 자랐습니다. 항상 믿음과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이후 남편 제리(사진 오른쪽)와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가톨릭학교에 다녔는데, 2010년에는 아들 둘이 다니던 성요한 비안네 고등학교에서 마리아니스트 상을 탔고, 우리는 같은 날에 같은 특별상을 받은 아들 둘을 둔 최초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왔던 마리아니스트 신앙과 은사가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은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나눠야겠다는 소망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전파하게 된 첫 단계는 무엇이었나요?

먼저 교목인 메리 케이 피츠패트릭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마리아수도회 맥메내니신부님에게 학교에서 소규모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님들과 동창들을 초대하여 두 개의 마리아니스 평신도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과 “마리아토론모임”을 결성하고 싶은 열정이 피어 올랐습니다. 마리아토론모임은 우리와 성모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나누고 가르치고 발전시킵니다. 또한 성모님의 덕,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각자와 하나되심,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강조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모임은 우리 삶을 향상시켜 줍니다.

마리아토론모임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신부님에게 가서 교구 내에서 마리아토론모임을 시작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신부님은 두 가지 모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저녁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구에는 두 개의 마리아토론모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모성심을 통해 가정에서 삶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임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교구 전역에 걸쳐 마리아에 대한 지식을 심화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관한 모든 말씀은 성모님에게 관한 말씀과 같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성모님은 거울과 같아서 교회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마리아토론모임에서 사용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교구 공동체에서 마리아토론모임을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수도회 쿠엔틴 해켄워스 신부님의 “예수님의 덕”은 이런 토론모임을 시작하기 좋은 책입니다. 독자들이 성모님의 눈을 통해 예수님의 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대학의 브랜트 피트리 교수가 제작한 비디오, “마리아, 성경, 어머니의 신”도 좋은 자료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마리아 교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마리아니스트 신앙공동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은 가장 거룩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작은 신앙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교구에는 이미 신앙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토론모임을 소개하기 좋습니다.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필요한 교회가 계승하는 마리아의 유산을 통해 평신도를 소개하는 첫 단계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아토론모임은 본격적인 평신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모임들이 저희를 도와 전세계 모든 이가 손끝에서 손끝으로 성모님과 이어지길 바랍니다.

교구 내 마리아토론모임 형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자넷 펜스(jeanettepence1@gmail.com)에게 연락바랍니다.